

[설문조사 양식] 2025년 청소년·청년의 해(2)- '배움과 체험의 해'

설문조사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2025년 부산교구 사목지침이 교회 구성원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청소년·청년의 해"의 두 번째인 '배움과 체험의 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들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을 찾아 갑니다. 2025년 '배움과 체험의 해'는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하여,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알고, 특히 말씀과 기도와 전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교구 사목 방향의 연속성과 지속성에 도움이 됩니다.

설문은 25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니,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고, 체크를 요청하는 문항에는 [✓] 또는 [○] 표시, 서술형 문항은 [한글] 또는 [수기]로 작성하셔서 스캔하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후 사목기획실 E-mail (pplan@catb.kr)로 5/30(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QR : 『구글 Forms』 설문 양식 접속

◆ 본인의 [소임 및 직책]을 체크해주세요. ()

- | | | | | |
|-----------|-------------|-----------|---------------------|---------------------------|
| ① 주임신부 | ② 부주임/보좌 신부 | ③ 수도자 | ④ 평협회장
(교구평협 포함) | ⑤ 여성연합회
(본당 여성 부회장 대상) |
| ⑥ 노인대학 대표 | ⑦ 레지오마리아 | ⑧ 교리교사 대표 | ⑨ 청년단체 간부 | ⑩ 가톨릭학생회 |
| ⑪ 중고등부 대표 | | | | |

◆ 본인이 속한 [지구]를 체크해주세요. ()

- | | | | | |
|--------|--------|--------|--------|--------|
| ① 남천지구 | ② 중앙지구 | ③ 하단지구 | ④ 가야지구 | ⑤ 금정지구 |
| ⑥ 우동지구 | ⑦ 양산지구 | ⑧ 삼계지구 | ⑨ 복산지구 | ⑩ 야음지구 |

◆ 본인의 [성별]을 체크해주세요. ()

- ① 남성 ② 여성

◆ 본인의 [연령대]를 체크해주세요. ()

- | | | | | |
|--------------|--------------|--------------|--------------|--------------|
| ① 만 19세 미만 | ② 만 19 ~ 29세 | ③ 만 30 ~ 39세 | ④ 만 40 ~ 49세 | ⑤ 만 50 ~ 59세 |
| ⑥ 만 60 ~ 69세 | ⑦ 만 70 ~ 79세 | ⑧ 만 80세 이상 | | |

1. 사목지침의 이해

문항	응답				
	5	4	3	2	1
① 2025년도 사목지침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② '하느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라는 핵심 테마가 적절히 설명되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③ '배움과 체험'의 기반인 '환대와 경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2. 배움과 체험 홍보와 기획

문항	응답				
	5	4	3	2	1
① '청소년·청년의 해(2) - 배움과 체험의 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예: 주보, 본당게시판, 훈화, 공지, 현수막, 반모임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② '배움과 체험의 해'에 대해 사목회 임원들과 제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③ 배움과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신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④ '배움과 체험의 해'를 맞아 적절히 편성된 기획과 예산이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⑤ 배움과 체험 관련 프로그램 실행 혹은 참가하고 난 후 적절히 피드백을 받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⑥ 배움과 체험 관련 체험담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3. 지구별 '젊은이의 날'

문항	응답				
	5	4	3	2	1
① 지구별 '젊은이의 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② 지구 단위의 협업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인적 지원이 마련되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③ 지구 단위의 행사를 기획하고 타 본당과 협력하기 위해서 팀워크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다. [예: 지구 대표회의, 봉사자 회의, 단합회, 피정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④ 지구 단위의 조직도가 마련되어 있어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단톡방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⑤ 지구 단위의 행사가 끝난 후 적절히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⑥ 지구 단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예: 감정 다름, 소통 부재, 모호한 역할 분담, 컨트롤 타워 부재, 봉사자의 번아웃, 봉사자 모집 어려움,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4. 중점사항 관련

문항	응답				
	5	4	3	2	1
① 타 본당, 수도회와 동반하기 위해서 타 본당과 수도회가 마련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파악하고 우리 본당이나 제단체에 적절히 소개되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② '기초 신앙 다지기'와 관련하여 신앙 실전을 돕는 자료가 구비되었다. [예: 팸플렛, 리플렛, 가정기도문, 개인 묵상집, 교해성사 안내서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③ 순교자 정신을 잇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 오룬대 성지개발을 위한 기도, 교구 도보 성지순례, 순교 관련 신앙서적 읽기, 전국성지순례, 최양업 신부님 관련 길 걷기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④ 부모 교육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⑤ 가정 안에서 신앙이 (손)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예: 가정기도, 묵주기도, 축일챙기기, 첫영성체, 청소년견진, 신앙학교, 피정 등에 관심 갖기 등]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⑥ 본당 내에 이주·다문화 가정과 장애 청소년, 청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⑦ '공동의 집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5. 중점사항 실천 사례 공유

□ '배움과 체험의 해' 각각의 중점사항 관련하여 공유하고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서술형)

① 각지구별 '젊은이의 날' 계획하기

② 타 본당, 수도회와 동반하기

③ 기초 신앙 다지기

④ 순교자 정신 잇기

□ '배움과 체험의 해' 각각의 중점사항 관련하여 공유하고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무엇입니까?

⑤ 부모 교육과 역할의 중요성 알기

⑥ 이주·다문화 가정과 장애 청소년, 청년에게 관심 가지기

⑦ '공동의 집 살리기'에 동참하기

6. 건의와 제언

'배움과 체험'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건의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서술형)

7. 본당 실정 파악

‘청소년·청년의 해’ 첫 해를 보내면서 본당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본당도 있었고, 노력화된 본당에서 ‘청소년·청년의 해’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사목국과 사목기획실은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간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들었던 느낌과 생각, 관찰을 솔직히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 항	응 답				
	5	4	3	2	1
① ‘청소년·청년의 해(2)’를 지내는 본당의 여건은 어떠합니까?	매우 좋다 ()	좋다 ()	잘 모른다 ()	어렵다 ()	매우 어렵다 ()
② 청소년, 청년의 해를 지내는 본당의 여건이 괜찮지 않다면 어떤 면이 그러합니까? (서술형) [예: 재정 부족, 젊은이가 없음, 봉사자 부족, 공동체의 관심 부족 등]					
③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미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④ 본당 내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⑤ 주일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어린이와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⑥ 청년들을 위한 미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⑦ 본당에 청년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
⑧ 청년회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사목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른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